

<2014년 11월 17일 새벽 정리요약말씀>

*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118:1

* 1998. 11. 20. 금 아침말씀(월명동 자연성전 북편 벽화)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내용의 말씀이 시작되어서 한 주일 동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직접적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모든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존재물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또한 공의,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악하게 만든 것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인자하게 선하게 공의롭게 대하지만, 사람들이 인자하게 공의롭게 선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한 대로, 사람이 물건을 만든 대로 써먹지 못하고 다르게 써 봐요. 다르게 써먹으면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대로 써먹어야 됩니다.

창조의 법칙을 어기면 존재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우리가 행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 속에서 감사할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감사할 것이 생기지만, 행동해보면 감사할 것이 생깁니다. 많이 활동할수록 많이 감사할 것이 생깁니다. 행동을 안 하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하루를 지내보고, 이틀을 지내보고, 1년을 지내봐도 자꾸 행동함으로 인해서 감사할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얼마큼 만들었는가도 써먹어 볼 때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뜻있게, 가치 있게, 유능하게 만든 것을 알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 감격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많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표어를 선생님이 내 걸었습니다. 강한 자만이 존재할 수 있다!

항상 섭리사에서는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중심과 같이 움직이고,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뒤에서 처진 사람들은 사탄의 주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대개 흑암의 주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와서 직접 살고 같이 뛰어 돌아다니는데 같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흑암의 주관을 받는 사람들, 사탄의 주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주관을 받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이깁니다. 하나님, 신이 움직이는데 그까짓 것쯤이야!
나는 보름동안 잠을 안 잤어도 이겨봤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뛰고 달리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요새 춥다구? 추운 것이 아닙니다. 겨울 날씨치고 따뜻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과 같이, 항상 활동해야만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생깁니다.

이번 주에 감사할 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활동하고 뛰어 돌아다닐 때 감사할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선하게 착하게, 그리고 자비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못 쓰게 되면 가치 발휘를 할 수가 없고, 쓰는 사람이 손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씹먹게 해 주시옵소서. 목소리를 씹먹고, 말씀도 씹먹고, 모두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흑암과 사탄의 침범을 받을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에게 능히 모든 것을 그리함을 받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평강과 공의와 진리로 함께 하고 영원토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자와 사랑과 공의와 진리가 영원하고 영원할지어다.

전국, 온 캠퍼스, 청년부들, 장년부, 중고등부 모두가 다 활발하고 뛰고 달림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해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게으른 것은 성경마다 다 지적했는데, 주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적 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지적을 받으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진리와 사랑과 공의가운데 삶이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